

전주대박물관, 온라인콘텐츠 사업 선정

호남 유일 사업 참여... 박물관 속 직업 체험·유물 큐레이팅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3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중 30곳을 선정, 호남에는 유일하게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참여한다.

이날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박물관 속 직업 체험', '유물 큐레이팅' 등 총 2개의 파트로 나눠 진행할 예정

이다. '박물관 속 직업 체험'은 전시, 교육, 학술 등 분야별로 구분에 학예사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지정 '경력인정 대상 기관'으로 박물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진로를 찾고 탐색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5편의 영상을 기획했다.

'유물 큐레이팅'은 매월 전시하는 '이달의 문화재'와 연계해 유물 중 하나를 선정해 학예

사가 들려주는 유물 이야기로 총 4편의 영상을 계획 중이다.

또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공간과 영상이 지속해 원활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방안을 마련해 5월~11월까지 영상 제작 및 영상 업로드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현수 학예 연구실장은 "온라인콘텐츠 사업은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기존 단순 이미지 나열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게 작품을 설명하고, 특히 학교 수업과 연계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김지우 개인전

5~10일 '상상표상' 개최

김지우 개인전 '상상표상'이 5~10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이에 따르면 작가는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꿈꾸는 이야기들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가 그려낸 이야기는 평범한 삶에 닿아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인연을 맺으며 희로애락을 느끼는 등 수많은 감정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작가가 참안한 '몽연(夢緣)'과 '몽이(夢利)'라는 상징적인 대상들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작품에서 '몽연'과 '몽이'는 각각 '소녀'와 '물고기'로 나타난다. 작가에 의하면 몽연은 '현실 속에서 인연에 관한 꿈을 꾸는 소녀'를, 몽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의 세상을 꿈꾸는 물고기'라는 개체로서 표상된다. 작품 속에서 몽연과 몽이의 시선은 같은 곳을 향해있기도,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하며 함께 여정을 떠나는 듯이 다른 존재들을 만나기도 한다. 결국 작가는 이러한 상징적인 개체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것이다.

'상상표상'에서 몽연과 몽이는 다른 존재들과 어울려 나타난다. 특히 작품마다 다른 동물들이 제작연도에 따라 등장한다. 입안년인 2022년의 작품에는 검은 호랑이가, 계묘년인 2023년의 작품에는 검은 토끼가 각각 몽연을



만나거나 몽이와 마주 보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객관적 시물을 바라보고 저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표상들을 자유롭게 상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지우 작가는 원광대학교 조각과를 졸업하고, 80여 회의 기획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판소리 이난초 명창 공개행사... 다채로운 무대 펼쳐

홍보가 보유자 인정 이후 3번째 행사

국가 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 이난초 명창의 공개행사가 지난 2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0년 이난초 명창이 국가 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로 인정이 된 이후 세 번째로 열린 행사로, 여러 내빈과 시민들이 자리를 빛낸 가운데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은 이난초 명창과 제자들의 홍보가 완장을 시작으로 육자배기, 남도민요 동백타령 등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국가 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 이난초 명창의 공개행사가 지난 2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하기 위해 공부를 쉬지 않았으며 성우형 명창에게는 춘향가를, 안숙선 명창에게는 심청가와 적벽가를 사사해 보성소리의 섬세함까지 두루 갖추게 되었다. 이난초 명창은 수십 년간의 판소리 인생

에서 여러 발표회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홍보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동편제의 탯자리인 남원에서 동편제의 맥을 보존하고 후학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난초 명창은 1961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나 국악 계통의 집안에서 자란 덕에 자연스럽게 소리를 접하였으며, 11세 때 처음으로 고(故) 김상용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 이후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난초 명창은 동편제의 5대손(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민갑-김정문-강도근)이자 큰 스승인 고(故) 강도근(1918-1996) 명창을 만나게 되어 홍보가를 비롯하여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배웠으며, 1992년 남원 춘향 전국 국악 경연대회(現 춘향국악대전)에서 32세의 나이로 최연소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더 나은 소리 세계를 구축

전주공예품전시관, 전북도립미술관 협업 '사색전'

전주공예품전시관은 내달 23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사색展'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관람료는 무료다.

이 행사는 도내 12개 시·군 공립기관과 협력해 진행되는 특별전으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을 선보인다. 전주공예품전시관 라온관(전시 2관)에서 진행되는 '사색전(展)'에서는 공예작품 12점을 관람할 수 있다.

'상상표상'에서 몽연과 몽이는 다른 존재들과 어울려 나타난다. 특히 작품마다 다른 동물들이 제작연도에 따라 등장한다. 입안년인 2022년의 작품에는 검은 호랑이가, 계묘년인 2023년의 작품에는 검은 토끼가 각각 몽연을

섬세한 미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 타이를 '사색'은 관람객이 잠시나마 공예의 가치를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혜원 공예문화산업팀장은 "'사색展'은 도민에게 수준 높은 공예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전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으로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미래교육 접목 문화행사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도서관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교육의 첫 시작-에듀테크로(路)를 걷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는 독서와 미래 기술을 융합한 문화행사로서, 이용자들이 미래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전시를 걸으며 미래교육 북극레이션 코너에서는 미래를 주제로 한 도서를 전시해 다양한 주제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강연로를 걸으며 인공지능시대의 자녀교육 특강을 들어볼 수 있다. 14일 세움교육연구소 김지영 대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인재로 거듭나는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연로에서는 교육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을 상연한다. 이는 행복한 가족 뮤지컬로 15일 오전 11시와 14시 2회에 걸쳐 상연된다.

끝으로, 참여로 체험길에서는 신비한 우주과학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우주 관련 도서를 읽고 우주 배쓰받 만들기 체험을, 탐정길에서는 방탈출 카페를 모티브로 한 미래에서 온 어린이 탐정 찾기 게임을 진행한다. 홍보길에서는 전주교육문화회관을 알리는 홍보 서포터즈를 찾아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도서관, 12일 정여울 작가 초청특강 개최

우석대학교 도서관은 오는 12일 오후 1시 교양관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정여울 작가 초청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여울 작가

다. 정여울 작가는 이날 신간 산문인 '문학이 필요한 시간'의 심층적인 이해와 문학과 치유 받은 값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희숙 도서관장은 "저자의 경험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도서관(063-290-1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